

국문초록

이 논문은 조선후기의 문인 迂軒 鄭彦儒가 남긴 紀行歌辭 「耽羅別曲」의 내용과 작가의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다.

迂軒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서서히 몰락해가던 名門의 후예로 태어나 경세에의 포부를 지니고 과거 준비에 매진하였다. 34세때 과거에 급제한 迂軒은 이후 40여년에 걸쳐 20여년간 환로에 있으면서 주로 牧民官과 言官의 직분을 담당하였다. 牧民官으로서 迂軒은 자기희생적인 애민 의식과 뛰어난 행정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治績을 남겼고, 言論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是非를 분명히 가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일생을 청빈하게 보낸 清白吏였다.

「탐라별곡」이 수록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필사본 『迂軒集』은 불분권 2冊(乾·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迂軒의 6세손 鄭雨德의 跋文에 의하면 1905년에 편집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는 초고본이다. 「탐라별곡」은 坤의 말미에 合綴別錄형태로 수록되어 있는데, 기존 2본과 대비한 결과 필사연대, 표기의 정확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善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탐라별곡」은 120句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행가사의 전형인 序詞-本詞-結詞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序詞는 제주의 역사, 지리적 환경, 작가가 제주목사로 부임해오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本詞는 흉년, 가혹한 세금 등으로 인해 굶주리는 제주도민의 참상, 이들에 대한 慰撫, 순력중 실시된 행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結詞는 醉興에 젖어 牧民官으로서의 고뇌를 일시적으로나마 잊는다는 내용이다.

「탐라별곡」은 작가의 견문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부분과 견문한 사실과 관련된 작가의 심회를 토로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견문 사실을 기술한 부분에서 주목되는 점은 작가가 견문사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눈앞에 전개되는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그의 漢詩가 지닌 중요한 특성이기도 한데, 이는 작가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작품에 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탐라별곡」에 투영된 핵심적 작가의식은 牧民官으로서의 애민 의식이다. 이점은 하층민의 고달픈 삶을 소재로 한 그의 漢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애민 의식은 유학을 신봉하는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논리적 차원의

당위가 아닌 현실적 · 정감적 차원의 진정성을 지닌 것이었다.

<주제어>

迂軒, 鄭彥儒, 「耽羅別曲」, 現實主義, 愛民意識

K C I

I. 머리말

이 논문은 조선후기의 문인 迂軒 鄭彦儒(1687~1764)의 紀行歌辭 「耽羅別曲」을 개관하고 작가의식을 검토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다. 필자가 「탐라별곡」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최근 「耽羅別曲」이 수록된 필사본 『迂軒集』¹⁾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필사 초고본으로 보이는 이 책을 일별한 결과 「耽羅別曲」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체로 작품 그 자체를 고립적으로 검토하였기 때문에 내용 이해 및 작가의식 파악에 있어 다시 논의해야 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耽羅別曲」은 1982년 尹石昌 교수에 의해 「耽羅別曲 研究」²⁾가 발표되면서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윤석창 교수는 자신의 소장본인 4卷 2冊으로 편집된 필사본 『迂軒集』에 수록된 「耽羅別曲」의 작자가 제주목사를 지낸 鄭彦儒임을 밝혔으며, 작자와 창작연대, 장르와 형식 등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작품의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어 尹致富 교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 두루마리 필사본을 대본으로 한 「耽羅別曲의 구성과 표현」³⁾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윤치부 교수는 윤석창 교수 소장본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본을 대비하여 그 차이와 필사연대의 선후관계를 밝히고, 내용 전개에 따라 分段하여 단락별 내용을 분석하고 각 단락이 의미상 유기적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을 구명하였으며, 표현기법에 있어서 작품의 各句는 當句對, 雙句對, 隔句對 등 다양한 對偶法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업적을 선택적으로 수렴하면서 본고에서는 「탐라별곡」 창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가의 행적과 이 논문의 대본이 된 『迂軒集』의 체제를 점검한 다음 작품을 개관하고, 이 작품에 투영된 작가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탐라별곡」의 내용 및 작가의식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수정 혹은 심화하는데 일정한 기여가 있을 것이다.

II. 作家와 出典

1. 鄭彦儒의 生涯

鄭彦儒의 生涯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는 비교적 많이 전하고 있는 편이다. 이 논문의 주 자료인 필사본 『迂軒集』 坤에는 鄭元容(1783~1873)이撰한 「嘉義大夫 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 鄭公墓碣名」⁴⁾과 鄭彦仁이撰한 「嘉義大夫 戶曹參判鄭公墓」⁵⁾, 迂軒의

1) 이 책의 서지는 다음과 같다. 筆寫本, 不分卷 2冊, 東裝, 四周單邊, 半郭 20.5×15.5cm, 有界 10行 22字 無魚尾.

2) 尹錫昌. 1982. 「耽羅別曲研究」. 『명지어문학』 제12호. 명지대학 국어국문학과. 81~97쪽.

3) 尹致富. 1995. 「耽羅別曲의 구성과 표현」. 『제주교육대학논문집』 제24집. 제주교육대학교. 1~16쪽.

4) 鄭彦儒. 『迂軒集』(필사본,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이하 이 책에서 인용한 원문은 『迂軒集』으로 표시함.) 坤 61~64張.

玄孫인 鄭圭成이 기술한 「迂軒參判公行狀」⁶⁾ 등이 부록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朝鮮王朝實錄』에도 迂軒과 관련된 기사 30條⁷⁾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耽羅別曲」 창작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나아가 그의 의식의 일단을 규명함으로써 작품 이해의 단서를 삼으려 한다.

鄭彦儒의 字는 林宗, 號는 迂軒, 本貫은 東萊이며, 成宗 때의 名臣 鄭蘭宗(1433-1489)은 그의 10대조이다. 曾祖는 有徵, 祖는 匡周, 父는 雲瑞이며, 母는 全州 李氏로 佐郎 李鼎興의 따님이다. 曾祖, 祖, 父는 迂軒이 현달함에 따라 司僕正, 承旨 吏曹參判에 추증되었다.

迂軒은 1687(숙종13)년 10월 2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유년기 및 수학기의 迂軒의 행적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어려서 조부에게 수학하였는데 문장과 식견이 나날이 진보하였으며, 한번 본 책은 바로 암송하였다는 그의 명석함에 대한 찬사와, 科文體에 능하였고 四·六文에 정통하여 바둑 한판을 두면서 문득 한 편을 지어 사람들이 ‘번개같은 솜씨’라고 칭송하였다는 일화가 「行狀」에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기사로 미루어 迂軒은 수학기에 이미 초야에서 학문에 매진하는 학자적 삶을 꿈꾸지 않고 관계로 진출하여 경세에의 포부를 구현하는 관료로서의 삶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721(경종1)년 증광문과에 급제한 迂軒은 승문원에 배속되었으나 ‘승문원의 권점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臺臣 李普昱의 論斥을 받고 門外出送 당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1755(영조31)년 나주괘서사건을 일으켜 처형된 尹志(1688~1755)가 1723(경종3)년 문과에 급제했을 때 윤지의 중형인 尹懋(1665-1724)이 辛丑獄事(1721년)에 연좌되어 유배중인데도 의기양양하게 遊街行進을 하는 것을 目覩하고, 윤지가 權知의 신분⁸⁾으로 승문원에 배속되자 迂軒이 그를 못마땅하게 여겨 일어난 사건이다.

1726(영조2)년에는 6품에 올라 氷庫別提를 거쳐 禮曹佐郎에 제수되었는데 名利를 쫓는 무리들이 迂軒을 찾아와 “우리들과 마음을 같이하면 출세가 빠를 것이다⁹⁾.”라고 유혹하였으나 엄하게 배척하였다. 며칠 후 迂軒을 咸鏡都事로 밀어내자 迂軒은 사직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1727(영조3)년에 兵曹佐郎, 黃海都事를 거쳐 泰川縣監에 제수되었다. 태천현감을 역임하면서 공평하고 청렴하였을 뿐만아니라 백성들을 잘 돌보아 영내가 잘 다스려졌다. 그러나 飢災로 말미암아 迂軒이 체직되자, 아전과 백성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겨 고을을 떠나지 못하게 막아서 밤에 몰래 강을 건너 태천을 떠났는데, 다음 날 새벽 백성들이 강가에 몰려나와 어떤 사람은 목 놓아 울기까지 하였다. 충청도 관찰사 宋寅明(1689-1746)이 장계를 올려 체

5) 같은 책. 65~68장. 앞쪽.

6) 같은 책. 68~75장.(이하 註 4), 5), 6)에서 인용한 내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석을 생략함.)

7) 한국고전번역원. 영조1년 을사(1725) 9월 27일 條 이하 정조20년병진(1798) 4월 18일 條까지 정언유 관련된 사가 30則 수록되어 있음.

8) 조선시대에 성균관, 승문원, 교서관, 홍문관 등의 分館에서 정식관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임시관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함.

9) 『迂軒集』. 坤. 「迂軒參判公行狀」 68張 뒤; 嘗直春曹 有時輩來見 曰若與君輩同心 則 朝夕當爲名宦 公嚴斥之 居數日 黜爲咸鏡都事 公亦辭不赴

직을 막으려 하였으나 끝내 성공하지 못하였다.

1731(영조7)년에는 溫陽郡守 에 제수되었는데 1년 전인 1730년에 보리농사가 크게 흉년이 들어 식량이 매우 풍족하였다. 迂軒은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순찰사 李衡佐에게 청하여 싼 값에 보리를 구매하여 여러 고을에 쌓아두게 하였다. 迂軒의 예상대로 그해 벼농사가 크게 흉년들었으나 온양은 물론 충청도 일대의 백성들까지 비축해둔 곡식 덕분에 굶주리지 않았다. 이 때 쌓아둔 곡식으로 장사하기를 권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迂軒은 단호히 거부하고 남은 곡식을 군민 진휼에 충당하여 2년 동안 연이어 흉년이 들었으나 온양 군민들은 기근을 면할 수 있었다.

1738(영조14)년 이후 掌令, 弼善, 知製告 등 내직을 역임하였다. 사헌부 장령이던 1739(영조15)년 宗室 琅璉君 李燦이 英祖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대왕 대비와 當寧의 尊號를 청하였다. 이 때 迂軒이 “말이 아침에 가깝습니다. 이점을 과직함이 마땅합니다¹⁰⁾.”라고 직언하니 영조가 “오늘 비로소 옛 臺閣의 당당한 모습을 보겠다¹¹⁾.”라고 칭찬하였다.

1741(영조17)년에는 順天府使 에 임명되었으나 4개월만에 부친상을 당하여 사임하였다. 3년 상을 마치고 나서 1744(영조20)년 獻納에 제수되었으나, 持平 朴聖源(1687-1757)이 영조가 耆老所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다가 南海에 圍籬安置될 때 왕의 부당한 처사를 論斥하다가 관직을 삭탈당하고 門外黜送되었다.

1748(영조24)년에 司諫에 제수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경상도 관찰사가 寧海府使를 뽑아 파견해달라는 장계를 올리니 이조에서 迂軒을 선발하여 파견하였다. 임지에 도착한 迂軒은 장부에만 남아있고 이미 없어진 漁船과 鹽釜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묵은 밭을 새로 개간하면 10년간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등 民瘼 改善策을 건의하여 조정의 윤허를 받아 시행함으로써 邑民의 고통을 덜어 주었다. 뿐만아니라 騰雲山 아래에 제방을 쌓아 數千頃의 농지에 관개함으로써 물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게 하니 영해 주민들이 이 제방을 ‘鄭公堤’라고 불렀다.

1749(영조 25)년에는 濟州牧使에 제수되었는데 당시 제주전역에 큰 흉년이 들어 島民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迂軒은 3천석의 구휼미를 조정에 요청하여 餓死 직전의 島民들을 구제하였다. 또 대정면 하모리 남쪽 앞 바다에 있는 加波島라는 작은 섬에 목장을 만들어 祭享에 쓰이는 黑牛 50마리를 방목하여 進貢¹²⁾에 대비하였으며, 세 곳에 과수원을 만들어 굴과 유자 貢納에 대비하였다. 뿐만아니라 가축을 훔치는 도둑이 많았는데, 迂軒은 엄한 법을 만들고 도둑을 잡아들여 도둑들이 없어지게 하였다. 그 밖에도 10여 가지의 폐단을

10) 『朝鮮王朝實錄』, 英祖15年 己未 6月 18日 條: 掌令鄭彥儒申前啓 不允 又啓 聖上臨御以後 謙挹彌切 聖德愈光 向者琅璉君燦請上尊號 言近阿諛 宜罷職

11) 『迂軒集』, 「嘉義大夫 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 五衛都總府 副總管鄭公墓碣銘」 66張 뒤; 又面斥宗臣之諂諛 上嘉乃曰 今日始見古臺臣風采

12) 『譯註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년 12월, 122쪽.

제거하였으나, 1751(영조27)년 8월 청궁의 진상에 문제가 있고 貢馬가 수척하다는 이유로 파직¹³⁾ 당하였다. 그러나 貢納문제는 핑계일 뿐 실은 1750(영조26)년 종실 李增이 유배 올 때 妻와 庶叔인 燾이 따라 와서, 牧使인 迂軒을 찾아와 弓矢를 요구하고, 관인을 구타하기까지 하며 工匠들을 제멋대로 부리는 등 만행을 일삼아 민폐가 심하였다. 이들의 행패를 목도한 迂軒이 “섬사람들이 단지 驪川君 李增이 있는 것만 알고 목사가 있는 줄은 모른다¹⁴⁾.”는 등 그들의 만행을 규탄하는 狀啓를 올렸는데, 李燾과 李增의 아우 李壘가 여러 가지 일을 꾸며 迂軒을 무함하였기 때문¹⁵⁾이다.

1755(영조31)년에 다시 同副承旨에 敍用되었고 이어 刑曹參判, 副摠管 戶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는데, 영조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 1764(영조40)년 3월 3일 龍山坊의 집에서 78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迂軒은 질박하고 청렴하였으며 아첨하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같은 性行이 널리 알려져 1796(정조20)년에 清白吏로 추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迂軒은 34세에 문과에 급제한 이후 78세로 별세할 때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공백은 있었으나 줄곧 官界에 몸을 담았던 관인이었고, 주로 地方官과 言官을 역임하였는데 지방관으로서 迂軒은 대단히 성실하고 유능한 행정가였다. 泰川, 溫陽, 寧海, 濟州 등 여러 지방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임지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모색하여 실천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었으며, 민생 안전을 위해 관례적으로 지방관이 누릴 수 있는 혜택까지도 거절한 이상적인 목민관이었던 것이다. 이점은 영해부사 재임 시 迂軒이 邑弊를 摘示하여 陳達한 상소문에 대한 영조의 批答을 수록한 『朝鮮王朝實錄』의 다음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언유는 侍從臣으로서 지방관을 맡아 이러한 상소를 하였으니 백성을 위하여 진실로 가상한 일이다. 진달한 다섯 조항을 즉시 回啓하여 거행하게 하라. 지금 영해 백성들은 정언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조정에 알릴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 道에도 이와 같은 경우가 또 얼마나 있을지 알지 못하니 여러 道의 道臣들로 하여금 널리 물어 조리있게 열거해서 보고하게 하라. 備局에서는 무심히 보아 넘기지 말고 성심으로 시행하라¹⁶⁾.

요컨대 牧民官으로서 迂軒은 진심으로 민생을 염려하는 투철한 애민의식을 지니고 있었기

13) 같은 책. 813쪽. 行狀에서는 貢馬가 수척하다는 이유로 체임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청궁의 진상과 공마의 문제가 잘못되어 불갑혀갔다”라는 기록이 있음.

14) 『朝鮮王朝實錄』. 英祖47年 辛卯 2月 5日 條; 頃年鄭彥儒爲濟牧時狀聞曰 島民只知有增 不知有牧云

15) 『迂軒集』. 坤「從政遺事」52張 뒤; 狀論其豪橫 而燾之 作拿狀 燾蒼黃上來 與增之弟壘 百計構陷 湊成罪過 終至於被拿 告身之罰

16) 『朝鮮王朝實錄』. 英祖 24年 戊辰 5月 18日 條; 寧海府使鄭彥儒上疏 陳邑弊 上賜批褒之 教曰 彥儒以侍從 宰百里 爲此陳章 爲民之誠可嘉 所陳五條 卽爲回啓舉行 今茲寧海之民 得鄭彥儒故導達民隱 而諸道若此者又未知幾許 其令諸道臣 廣詢條列狀聞 備局無視冷暖 誠心許施焉

에 민중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위의 비답에서 영조가 迂軒의 경우를 모범적인 사례로 들어 여러 道의 관찰사에게 알리고, 道民의 고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명령한 것은 迂軒의 상소문에서 민생을 염려하는 진정성과 개선책이 지닌 현실성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迂軒이 관직에 있을 때 배경이 될 만한 친척도 없었고 특별한 교분이 있는 권세자도 없었음¹⁷⁾에도 참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관료로서의 재능과 사심없는 처신, 검소하고 청렴한 평소 생활 태도 때문이었을 것이다.

迂軒은 가난하기도 하였지만 매우 검소하여 남아 보잘 것 없는 헌 옷 한 벌을 사철 입고 있었고, 비바람도 피할 수 없는 초가에서 한겨울에도 온돌에 불을 때지 않고 짚으로 만든 거적대기를 깔고 지내면서도 즐거운 기색¹⁸⁾이었다고 한다. 迂軒 死後 32년이 지난 1796(정조20)년에 청백리에 薦選된 것은 일생을 청빈하게 보낸 양심적인 관인이었던 迂軒의 삶에 대한 보상이었던 것이다.

2. 『迂軒集』의 구성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의 필사본 『迂軒集』은 불분권 2冊(乾·坤)의 필사본으로 필사자는 미상이다. 먼저 이 책의 체제를 개괄하면, 乾의 卷首에는 撰者를 밝히지 않은 「序」가 수록되어 있다. 「序」의 내용 가운데 “高王考迂軒公”이란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序」는 迂軒의 4세손(圭容, 圭憲, 圭成, 圭密) 가운데 한 사람이 틀림 없고, 6세손 雨德이 쓴 이 책의 「跋」에 “至我王父 始用力於先代文獻……爲上下二卷 親自傳謄而寶藏之”라고 기술한 것으로 미루어 雨德의 조부로 迂軒의 行狀을 지은 鄭圭成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序」에 의하면 乾 1冊은 저자의 후손들이 저자와 내왕이 있었던 여러 집안에 전해오던 詩文을 수집하여 엮은 것으로, 和·次韻詩는 原韻을 附錄한 경우가 많다. 이는 후손들이 迂軒과 교유가 있었던 詩文集에서 저자의 詩文을 찾아내었음을 시사한다. 「序」뒤에는 계선만 그려진 4장의 빈종이가 연결되어 있는데, 목록을 정리하여 수록하기 위해 비워둔 것으로 판단된다.

본문의 첫 면에는 1행 우측 상단에 ‘迂軒集’이란 冊題가 표기되어 있고 권차 표시나 이하에 集錄된 詩文의 성격과 관련된 아무런 언급없이 바로 “自試場來從祖主(號東溪 諱來周)步簡易堂韻示一律(辛丑年)”이란 7언율시와 “原韻”이 수록되어 있다. 이하 10장 “挽再從叔(諱昌瑞)”까지 23題 43首의 시작품과 6首의 原韻이 수록되어 있다.

第 11張 1行 상단에도 ‘詩’라는 장르 표시가 있고 2행에는 ‘西征錄上’이라는 卷題 아래 ‘서정록’의 창작배경에 해당하는 10행의 산문이 기술되어 있다. ‘西征錄上’에는 45장에 걸쳐 「悼

17) 『迂軒集』, 64장. 앞; 立朝內無葭莖之親 外無蟠木之援

18) 같은 책, 63장. 뒤; 公愈老愈自勵 草屋不蔽風雨 盛冬藉?薦 日中一疏麝處之怡如

亡(十二日)」이하 114題 252首의 작품과 32首의 原韻이 실려 있으며, 끝부분에는 「家信(5首)」이 창작된 배경을 진술한 6行의 산문이 부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第39張에서 第44張에 걸쳐 수록되어 있는 30首의 詩는 唐詩의 제목을 그대로 써서 지은 특이한 형태의 작품이다.

「西征錄上」이 끝나고 乾의 第 56張 1行 상단에는 「迂軒集」이라는 冊題가 표시되어 있고, 그 行 상단에 「詩」라는 장르 표시가 있으며 3行에 「西征錄下」라는 卷題 표시가 있고, 「寄德弘」이하 61題 132首의 작품과 30首의 原韻이 附錄되어 있다.

「坤」의 첫 장은 계산만 그어져 있는 빈 장이 묶여져 있다. 본문이 시작되는 첫 장 앞면 1행 상단에는 「迂軒集」이라는 冊題가 표기되어 있으며 「坤」에 실린 「頂門針 上·下」를 수집한 경위를 7행에 걸쳐 쌍행의 산문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어 제 9행에는 「頂門針上」이라는 卷題가 있고 제 10행 상단에는 작은 글씨로 된 「詩」라는 장르 표기가 있으며 행을 바꾸지 않고 「金吾胥命時作」이라는 詩題가 쓰여져 있다. 뒤이어 26장에 걸쳐 97題 143首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坤」의 제 27장 제 1행 상단에는 「迂軒集」이란 冊題, 제 2행에는 「頂門針下」라는 卷題 표기가 있다. 제 3행에는 「序」라는 문체 표기가 있으며, 이어 6장에 걸쳐 「沙湖集序(吳益昌 號沙湖 官正郎 咸陽人)」, 「春谷集序」, 「平山申氏別譜序」, 「擇里誌序」, 「大迂識後序」 등 5편의 「序」가 수록되어 있다. 제 33장 1행 우측 상단에는 「記」라는 문체표기가 있고 「水雲亭重修記」가 수록되어 있다. 이어 제 35장 1행 상단에는 「行狀」이란 문체표기 아래 「嘉義大夫行工曹參判兼內資寺提調尹公鼎和行狀」이 수록되어 있다. 제 44장 1행 상단에는 「諡狀」이라는 문체 표기가 있고 「茂山君諡狀」이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 47장 1행 상단에는 「墓誌銘」이란 문체 표기가 있으며 「奉列大夫春秋館記注官行兵曹正郎表叔松厓李公墓誌」가 수록되어 있다. 제 49장 제 1행 상단의 「從政遺事」라는 제목이 있으며, 「溫陽郡守鄭東儒褒啓御史啓辭」, 「道伯啓辭」와 「姪孫溫陽倅彥儒褒識」, 「諭全羅道兼防禦使濟州牧使鄭東儒(乾隆 十四年八月初六日)」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 제 54장 제 6행 상단에 「疎」라는 문체명 표기가 있고 「刑曹參判辭職上疏(辛巳 十月二十四日 以來擬復拜刑曹參判)」 및 「戶曹參判辭職上疏」가 실려있다. 제 57장에는 국왕을 대신하여 文純公 李滉(1501~1570)에게 올리는 제문 및 「祈雪親祭文」이 수록되어 있다. 제 58장 이하는 跋文으로 「先府君遺筆後跋」, 「松厓集跋」, 「擇里誌跋」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擇里誌跋」은 정언유의 글이 아니고 李鳳煥이 지은 것이다.

제 61장에서 75장까지는 附錄에 해당하는데 鄭元容(1783~1873)이撰한 「嘉義大夫戶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鄭公墓碣銘」, 鄭仁(諱+仁)의 「嘉義大夫戶曹參判鄭公墓(誌銘?)」, 鄭圭晟이 지은 「迂軒參判公行狀」이 수록되어 있다.

제 77장에서 80장 사이에는 合綴別錄에 해당하는 국한문 혼용의 가사 「耽羅別曲(一百二十句)」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 80장 말미에 「撻川之賊鋒猝迫智不及謀 龍灣之天步遙巡勢急逃難(壬午 八月初二日夢中作)」글이 부록되어 있다. 제 81장에는 1905년에 鄭雨德이 쓴 발문이 있

다.

이상에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이 책은 일반 문집의 체제에 따라 편집된 完定本이 아니라 公刊을 위해 遺文과 관련 기사들을 수집하여 대략 정리한 草稿本이며, 필사년대는 발문이 쓰여진 1905년 직후인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 책은 일반 문집의 편찬 방식에 따라 4卷 2冊으로 편집된 윤석창 교수 소장 필사본 보다 선행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계명대학교 소장 『迂軒集』所載 「탐라별곡」(A)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권자본 「탐라별곡」(B) 및 윤석창 교수 소장 『迂軒集』所載 「탐라별곡」(C)의 序詞¹⁹⁾부분을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 A. 耽羅넛도읍이 몇千年基業인고
- B. 耽羅 넛 都邑이 몇 千年 基業인고
- C. 耽羅 넛 都邑이 몇 千年 基業인고

(2)

- A. 星主王子디난후의 物換星移오 리거다
- B. 星主 王子 디난 후에 物換星移 오리도다
- C. 星主 王子 디난 後의 物換星移 오리도다

(3)

- A. 城郭이긔치시니 人民인들넛긔탈손가
- B. 城郭이긔쳐스니 人民인들 넛긔틀손가
- C. 城郭이긔쳐스니 人民인들 넛긔흘손가

(4)

- A. 聖朝의臣屬히미 命吏을보 니시니
- B. 聖朝에 臣屬디매 命吏을 보내시니
- C. 聖朝의 臣屬되미 命吏을 보니시니

(5)

- A. 흔도각彈丸小島 大海예써잇난디
- B. 흔 도각 彈丸小島 大海예 써잇난디

19) 윤석창 소장본과 한국학 중앙연구원 소장 권자본은 尹致富의 전계 논문 46~51쪽에 실린 것을 재인용함.

C. 혼 조각 彈丸小島 大海에 씨앗난디

(6)

- A. 三邑을 눈화안쳐 솟발로버려시니
- B. 三邑을 눈허 잇서 솟발 ㄱ되 버려시니
- C. 三邑을 分置하여 솟발 갖치 버려시니

(7)

- A. 山南은兩縣니오 山北은州城니라
- B. 山南은 兩縣이오 山北은 州城이라
- C. 山南은 兩縣이오 山北은 州城이라

(8)

- A. 土地는 괴을미여 民物은어디 하니
- B. 土地는 괴 얼마며 民物은 어디하니
- C. 土地난 그 얼마며 民物도 壯大하다

(9)

- A. 營門을陞設하여 名位을重히 하여
- B. 營門을 陞設하고 名位을 重히 하니
- C. 營門을 陞設하고 名位을 重히 하여

(10)

- A. 節制使兼防禦로 一島을彈壓 하니
- B. 節制使兼防禦로 一島을 彈壓 하니
- C. 節制使兼防禦로 一島를 彈壓이라

(11)

- A. 丹邱의차던印綬 새使君씨 傳掌하고
- B. □□의 찾던 印綬 새 使君씨 傳掌 하니
- C. 寧海의 차던 印綬 새 使君씨 傳掌하고

(12)

- A. 行李을收拾하야 嶺湖로도라와서
- B. 行李을 收拾하야 嶺湖로 도라와서
- C. 行李을 收拾하야 嶺湖로 도라와서

(13)

- A. 諭書을압셔오고 重溟을겨오건너
- B. 諭書을 압셔오고 重溟을 겨오 건너
- C. 諭書을 압셔오고 重溟을 겨우 건너

(14)

- A. 禾北鎭下碇하여 東城門도러드니
- B. 禾北鎭 下碇하여 東城門 드리오니
- C. 禾北鎭 下碇하여 東城門 도라와서

(15)

- A. 閭閻이錯雜하디 四隅의石牆이오
- B. 閭閻이 錯雜하디 四隅에 石牆이오
- C. 閭閻이 錯雜한데 四隅에 石牆이오

(16)

- A. 街路가廣平하디 兩行의楊柳러라
- B. 街路가 廣平하디 兩行에 楊柳로다
- C. 街路가 廣平한데 兩行에 楊柳로세

(17)

- A. 左右을돌너보니 壯麗할손 公廨로다
- B. 左右을 돌너보니 壯麗할손 公廨러다
- C. 左右을 돌너보니 壯麗할손 公廨로다

(18)

- A. 觀德亭노피안자 將士의禮貌 맞고
- B. 觀德亭 노피 안자 將士의 禮貌 맞고

C. 觀德亭 넘히 안저 將士의 禮貌맞고

(19)

- A. 殿牌의 肅謝 ㅎ고 斧鉞을 손의 쥐니
- B. 殿牌에 肅謝 ㅎ며 斧鉞을 손에 쥐니
- C. 殿牌에 肅拜하며 斧鉞을 손에 쥐니

(20)

- A. 公然 ㅎ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
 - B. 公然 ㅎ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
 - C. 公然한 白面書生 大將의 威儀로다
- (괄호 속의 숫자는 句의 차례임)

이상에서 세 본의 序詞부분을 대비해 본 결과 표기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 부분에 나타난 표기 및 내용상 상이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2) 디난후의(A) - 디난 후에(B) - 디난 後의, 오리 거다 - 오리로다 - 오리로다

(3) 궂탈손가 - 궂틀손가 - 궂흘손가

(4) 보너지니 - 보내지니 - 보 너지니

(5) 혼도각 - 혼 도각 - 혼 조각

(6) 눈화안쳐 - 눈허 잇서 - 分置하여

숫발로 - 숫발 ㄴ퉁 - 숫발 갖치

(7) 兩縣니오 - 兩縣이오 - 兩縣이오, 州城니라 - 州城이라 - 州城이라

(8) 土地는 귀을미여 - 土地는 귀 얼마며 - 土地난 그 얼마며

民物은 어디 ㅎ니 - 民物은 어디 하니 - 民物도 壯大하다

(9) 陞設 ㅎ여 - 陞設 ㅎ고 - 陞設하고, 名位을 重히 ㅎ여 - 名位을 重히 ㅎ니 - 名位을 重히 하야

(10) 彈壓 ㅎ니 - 彈壓 ㅎ니 - 彈壓이라

(11) 丹邱의 차던 - □□의 차던 - 寧海의 차던, 시使君의 傳掌 ㅎ고 - 새 使君의 傳掌 ㅎ니
- 시 使君께 傳掌 ㅎ고

(13) 압셔오고 - 압세오고 - 압셔오고, 겨오건너 - 겨오건너 - 겨우 건너

(14) 도러드니 - 드러오니 - 도라와서

- (15) 錯雜흔디 - 錯雜흔디 - 錯雜한데, 四隅의 - 四隅에 - 四隅에
 (16) 廣平흔디 - 廣平흔디 - 廣平한데, 兩行의 - 兩行에 - 兩行에
 (17) 壯麗할손 - 壯麗할손 - 壯麗할손, 公廨로다 - 公廨러다 - 公廨로다
 (18) 노피안자 - 노피 안자 - 넘히 안저
 (19) 殿牌의肅謝호고 - 殿牌에 肅謝호며 - 殿牌에 肅拜하며, 손의쥐니 - 손에 쥐니 - 손에 쥐니
 (20) 公然호 - 公然호 - 公然한

이상의 대비에서, (5)句의 ‘도각 -도각-조각’, (9)句의 ‘호여-호고-하교’, (14)句의 ‘호여-호여-하여’, (15)句의 ‘흔디-흔디-한데’, (19)句의 ‘호고-호며-하며’ 등으로 보아 A본과 B본의 선후 관계는 분명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A·B본이 C본 보다 선행본임은 분명하다. 특히 (6)句 ‘논화안처 - 논히 잇서 - 分置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C본의 경우 순수 우리말을 한 자어로 바꾸어 놓은 경우도 있다. 그리고 표현의 정확도와 관련하여, (6)句, (14)句 등을 통해 볼 때 A본이 비교적 선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A본 (8)句의 ‘되여’에서 ‘여’는 ‘며’의 誤記이고, A·C본 (11)句의 ‘시’는 ‘새’의 誤記인 것으로 판단된다.

Ⅲ. 작품 개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耽羅別曲」은 120句에 이르는 비교적 장형의 가사이다. 작품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내용 전개 양상에 따라 序詞 · 本詞 · 結詞로 나누어 각 단락의 내용을 개관하고자 한다.

1. 序詞

- 1) 耽羅넛도움이 몇千年基業인고
- 2) 星主王子디난후의 物換星移오 리거다
- 3) 城郭이곳치시니 人民인들넛갓탈손가
- 4) 聖朝의臣屬호미 命吏을보너시니
- 5) 혼도각彈丸小島 大海예저잇난디
- 6) 三邑을논화안처 솟발로버려시니
- 7) 山南은兩縣니오 山北은州城니라
- 8) 土地논괴을되여 民物은어디호니
- 9) 營門을陞設호여 名位을重히호여

- 10) 節制使兼防禦로 一島을彈壓호니
- 11) 丹邱의차던印綬 시使君의傳掌호고
- 12) 行李을收拾호야 嶺湖로도라와서
- 13) 諭書을압셔오고 重溟을겨오건너
- 14) 禾北鎭下碇호여 東城門도러드니
- 15) 閭閻이錯雜호디 四隅의石牆이오
- 16) 街路가廣平호디 兩行의楊柳러라
- 17) 左右을돌너보니 壯麗할손公廡로다
- 18) 觀德亭노피안자 將士의禮貌 밧고
- 19) 殿牌의肅謝호고 斧鉞을손의쥐니
- 20) 公然호白面書生 大將의威儀로다

1)~4)句는 제주의 역사를 언급한 부분으로 2)句의 星主·王子는 高乙那의 15대손 高厚 삼형제가 바다를 건너 신라 땅인 耽津에 왔을 때 신라왕이 高厚와 아우인 高淸에게 준 칭호²⁰⁾이다. 耽羅라는 명칭 또한 耽津에와서 新羅에 조회하였기 때문에 신라에서 붙여준 이름이다. 1402(태종2)년에 이르러 星主 高鳳禮와 王子 文忠世 등이 入朝하여 ‘정주·왕자’라는 칭호는 참람되니 改稱해 줄 것을 건의하여 星主를 左都知管, 王子를 右都知管으로 개칭함으로써 탐라국은 없어졌다²¹⁾. 4)句의 “聖朝의臣屬호미”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이해된다.

5)~8)句는 제주의 지리적 환경을 언급한 부분이다. 6)~7)句는 1416(태종16)년 이래 한라산을 경계로 북사면에 제주목, 남사면의 동쪽에 旌義縣, 서쪽에 大靜縣을 두어 三邑制가 실시되어 온 사실을 말한 것이다.

9)~17)句는 작자가 제주 목사로 부임하는 과정을 기술한 부분이다. 9)~10)句는 제주도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주 목사의 지위를 격상시켜 절제사와 방어사라는 고위 무관직을 겸하게 한 사실을 언급한 것이고, 11)句의 丹邱는 작자가 재임하였던 寧海의 옛 地名이다. 18)~20)句는 牧使 부임행사장면을 그린 부분으로 觀德亭은 원래 병사들의 훈련 상황을 돌아보던 곳²²⁾인데 제주목사 부임행사도 이곳에서 진행되었던 듯하다.

이 단락에서 주목되는 점은 작가가 떠나면 바닷길을 건너 제주에 도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고초를 겪었음직함에도 부임도중의 어려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이 단락 끝부분에 집중적으로 언표되어 있듯이 軍職을 겸한 牧民官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긍심은 牧民官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20) 『국역 신증동국여지승람』. 1987. 고전국역총서. 민족문화추진회. 193쪽.

21) 앞의 책. 94쪽 참조.

22) 『譯註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년 12월. 229~230쪽.

다.

2. 本詞

- 21) 延曦閣 잠간쉬여 巡歷 길밧비나셔
- 22) 海方도돌너보며 風俗도살펴보니
- 23) 어엿불스우리百姓 무슴일로偏苦호여
- 24) 衣食이艱窘퀸니 興味가잇실손가
- 25) 八陽足踏계우호여 薄田을耕作호니
- 26) 자른호피저근보십 辛苦히 밭갓고아
- 27) 五六月盡力호여 西成을바라더니
- 28) 造物이忌劇호고 天時도그릇되여
- 29) 惡風과甚호霖雨 히 " " 므다孔極호니
- 30) 田畝을도라보면 兵馬로죽발론닷
- 31) 各穀을돌려보면 鐵鞭으로죽쳐논듯
- 32) 나문이삭주어니니 뵈썩폴 썩이로다
- 33) 무어슬公債갓고 어디구려사라날고
- 34) 거리 " " 모든飢民 駕轎 갓고니론 말리
- 35) 설리울손울리性命 나라희달려시니
- 36) 流民圖옴겨다가 人君 거신디알외고져
- 37) 가족옷폴戰笠니 이무슨衣冠이며
- 38) 모밀밥橡實粥이 귀무산飲食일고
- 39) 歲 " 예國恩입어 羅鋪移轉虛費 호니
- 40) 請粟도늦 치엿고 生計도茫然호니
- 41) 牧子一族鮑作 구실 이에셔더설우며
- 42) 船格의貿易무리 괴안이難堪호나
- 43) 滄溟이限隔호고 邦禁이嚴截호니
- 44) 살곳예못가기는 紇干山언 시긋도다
- 45) 슬프다너의艱苦 너어이모라리오
- 46) 힘디로救濟키는 官長의게 밋여씨나
- 47) 건디여디니기는 네모옴의 들려시니
- 48) 글러스록惕念호야 常히心性保全호야
- 49) 天恩을넋디말고 父子兄弟相愛호면

- 50) 玉皇니구버보셔 福祿을주시 논니
- 51) 窮困을恨치말고 네道理盡心 ्ह면
- 52) 그中の榮華잇셔 貧賤을버셔나니
- 53) 넷時節도라보면 그안니알일인가
- 54) 三聖神소스느後 民俗 이淳和 ्ह니
- 55) 歲事도豐登 ्ह고 人畜도蕃盛 ्ह여
- 56) 집”이 橘林이오 곳”이駿馬너라
- 57) 御乘도예서나고 祭牛도예서나니
- 58) 國畜도盛커니와 私屯 人들저글년가
- 59) 飛龍又튼 宛馬種은 各牧場의가득 ्ह고
- 60) 黃金갓튼 洞庭橘은 公私園의 香니나니
- 61) 和平 ्ह別天地을 前古의일너시니
- 62) 조흔씨그世界에 너희쳐로서리 ्ह라
- 63) 하물며漢擎山이 天下의일흠잇셔
- 64) 瀛州가奇異흠 이 三神山의 ्ह느히니
- 65) 老人星발근光彩 壽域을여러노코
- 66) 金剛草꼭튼 빗치 白髮을검게्ह니
- 67) 넷날의秦皇漢武 못보와遺恨인 디
- 68) 너희는 仙分도화 이곳에生長 ्ह여
- 69) 瀛室을것희두고 白鹿潭우희안자
- 70) 流霞觴ヲ 득부어 老仙 과酬酌 ्ह니
- 71) 煙火食不關커든 다른念慮이실논가
- 72) 드틀거시무어시며 求홀거시무어시니
- 73) 노푼峯을너셔 塵土 을구버보면
- 74) 큰바다잔만 ्ह여 世上이春夢이라
- 75) 그가온디인논 스람 營爲 ्ह기可笑로다
- 76) 山房을불작시면 빈절만基址잇고
- 77) 土城을술퍼보면 넷陣터잇셔시니
- 78) 萬事을해아리면 뉘안니헛되리오
- 79) 金方慶崔瑩將軍 왓던踪跡귀뉘알며
- 80) 李文景三別抄는 叛亂 만지어잇데
- 81) 九鎮이버리잇셔 防守 을申飭 ्ह피
- 82) 兵器도精巧 ्ह고 武士도壯健 ्ह니

- 83) 異國이여어분들 나라못건너리니
- 84) 軍餉이업건마는 天塹이밋분지라
- 85) 閑漫흔營中公事 開閉門뿐이로다
- 86) 초라히 막디잡고 勝地나遊賞하려
- 87) 翠屏潭題名하고 登靈區츠자가서
- 88) 流觴曲水노리하며 追雉슨양시작하네
- 89) 妓女의歌管소리 仙樂과和荅하미
- 90) 天風에놀는笙鶴 半空의느리오니
- 91) 世緣을다떨치고 胸海을더넌리니
- 92) 赤松子安期生을 거의서로만날리니
- 93) 王事을못잊쳐서 驅點을시작하네
- 94) 十二場츠레지여 往來하며불슬피니
- 95) 무리” ”모든말리 구름인가비 돈인가
- 96) 壯觀이더하기는 山馬點烙릴로다
- 97) 木柵을구지것고 一時에모라니니
- 98) 느는듯췌노는듯 巖谷이며林藪로다
- 99) 북소리旗幟밋히 山獸도차니드르니
- 100) 豪健흔모든將校 다토와지조비니
- 101) 獐鹿도만카이와 武勇도壯하도다
- 102) 一場에勝흔로움 보기도조컨니와
- 103) 民情을히아리니 心膽이아득하여
- 104) 悄 ” 히도로와 ” 서 臥仙閣 의비겨더니
- 105) 無端흔춘비발암이 橘園에서릴어느니
- 106) 시음으로자던꿈을 놀느췌여이러느서
- 107) 望京樓노푼欄干 의지하여멀리보니
- 108) 바다밋아득하디 長安이멀러시니
- 109) 瓊樓玉宇縹緲흔곳 우리人君 치우신가
- 110) 孤臣의수문근심 到處의밋쳐시니
- 111) 어느췌順風만나 險海을利涉하여
- 112) 이곳예物情民憂 細 ” 히알외고저

本詞는 신임 제주목사로서 巡歷中 작가가 견문한 사실과 작가의 상념을 묘사한 것으로 내용상 다시 네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21)~32)句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며 농사에 열중하여도 고르지 못한 일기 때문에 농사를 망쳐 버린 농민들의 참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 단락의 26)~27)句, 30)~31)句에서 볼 수 있듯이 작가는 제주 산간 지역의 좁고 거친 농토와 이러한 환경때문에 짧은 호미와 작은 보습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과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말이 짓밟은 듯 철로 만든 채찍으로 마구 내리친 듯한’ 참혹한 현장을 실감나게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적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작가의 현실 인식의 진정성을 신뢰케 한다. 32)句의 ‘뽕’은 ‘뽕’의 誤記이다.

33)~44)句는 굶주림에 지친 제주도민들의 눈물겨운 신세한탄을 직접화법으로 재현한 것이다. 39)句의 ‘羅鋪移轉’은 제주도에 흉년이 들었을 때 도민들이 굶주림 때문에 육지로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라도 임피에 마련해 둔 구호미를 제주도로 실어 오는 것을 말한다. 41)句의 ‘牧子’는 나라의 목장에서 소와 말을 치는 사람이고, ‘鮑作은 해녀들이 바다 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것이며, 船格은 배를 부리는 格軍이다. 羅鋪穀을 풀어 주린 백성들을 구휼하여도 턱없이 모자라 생계가 茫然하고, 牧子와 해녀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또한 감당하기 힘들며, 배상공들의 생계대책이었던 무역마저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44)句의 紇干山의 언새끝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굶주림에서 탈출할 길이 없는 제주도민들이 당면한 현실이 흘간산 위의 뽕뽕 얼어붙어 좋은 곳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새의 신세 23)와 같다는 것이다.

45)~80)句는 목민관으로서 기근과 가혹한 세금에 시달리는 백성을 慰撫하는 대목이다. 이 단락의 45)~52)句에서 작자는 기민 구제의 성패는 목사인 자신의 역량에 달렸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우선 연이은 흉년으로 인하여 흉흉한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다. 父子兄弟가 서로 사랑하면 天福이 내린다는 상투적인 언사를 쓰기는 하였지만 가장 기초적인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설사 조정으로부터 구제미가 도착한다하더라도 혼란은 여전히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3)~62)句에서 작자는 굴 · 말 · 소 등 제주의 풍부한 物産을 상기시켜 당면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우고 있으며, 63)~72)句에서는 한라산의 빼어난 자연 경관을 고사를 통해 환기하고 이러한 仙境 속에서의 삶 그 자체가 진시황과 한 무제도 누릴 수 없었던 천운임을 강조함으로써 기민을 위로하려한다. 73)~80)句에서 작자는 폐허가 되어버린 유적과 자취조차 아는 이 드문 역사적 인물을 들어 한 때의 榮華가 허망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목전의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 부분 80)句의 ‘네’는 ‘네’의 誤記인 것으로 판단된다.

81)~101)句는 巡歷中 행하였던 행사를 기술한 것이다. 81)~85)句는 무관직인 防禦使를 겸

23) 일명 紇眞山으로 여름에도 늘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흘진산 꼭대기 참새 한 마리 죽었네 어찌하여 날아가서 즐겁게 살지 못했는가”라는 속요가 있었다고함.(『資治通鑑』. 唐昭宗 天佑元年條)

임하였던 제주목사로서 9진을 둘러보고 軍備를 점검하는 관례적 행사를 기술한 부분이며, 82)~92)句는 巡歷中 벌어진 여흥 장면을 기술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제주의 名所인 靈區²⁴⁾에서 술과 妓樂을 즐기면서 순력에 지친 심신을 달랬던 것이다. 93)~101)句는 휴식하고 난 뒤 12목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말을 점검하고, 山馬에 낙인을 찍는 장면과 장교들이 조정에 진상할 노루, 사슴 등을 사냥하는 씩씩한 장면을 신명난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102)~112)句에서 작자는 순력을 마치고 관아로 돌아왔으나 순력중 목도한 백성들의 참상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아 시름겨워하다가 설핏 잠이 든다. 잠결에 꿀밭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에 놀라 깨어난 작자는 서울 쪽을 바라보며, 112)句에 언표되어 있듯이 제주 백성이 처한 상황을 상세히 조정에 보고하리라 결심한다. 이 부분의 의미를 단순히 戀君으로 이해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임금을 그리워하는 언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民情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백성들의 참상을 조정에 알려 그들을 구제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 부분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 結詞

- 113) 嘿 " 히혼자안자 百 가지로思量 하니
 114) 술이라 盡醉하여 한씨나이살지라
 115) 一盞 " "復一盞을 無盡 " " 먹어시니
 116) 睡鄉인듯醉鄉인듯 客懷世慮有無間 에
 117) ㅼ람길 畫角聲에 玉簫仙 을접흔듯
 118) 恍惚흔이니몸이 華胥天에와잇는 ㅼ
 119) 塵客인가仙官인가 ㅼ뉘라셔分辨 ㅎ리
 120) 어화이렁저렁지니니 萬斛시음다풀어 ㅼ리거라

이 단락을 문면 그대로 보면, 술을 진탕 마시고 醉興에 젖어 목민관으로서의 고뇌를 일시적으로나마 벗어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단락의 문면 내용을 근거로 작가가 지닌 현실 인식의 불철저성을 지적 내지 비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歌辭의 단락 내용 구성 방식에서 醉興을 노래하는 것으로 結詞를 삼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宋純의 「俛仰亭歌」, 鄭澈의 「關東別曲」, 「星山別曲」 등에서도 확인²⁵⁾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표현은 고정화한 격식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24) 『譯註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년 12월, 152쪽 참조. 한라산 북쪽 기슭의 물이 모여드는 한라산 입구의 계곡을 말하는데 기암괴석에 많은 사람들이 흔적을 남겨두었다.

25) 尹致富. 앞의 논문. 55~57쪽.

IV. 세계관적 배경과 작가의식

작품개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탐라별곡」은 작가가 제주목사로 부임하면서 관할지역을 순력하고 제주의 역사 · 지리 · 민생 · 자연경관 · 풍속 등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자신의 심회를 노래한 기행가사이다. 여기서는 迂軒이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게 된 세계관적 배경과 작가의식에 대하여 논의 하고자 한다.

「탐라별곡」의 내용을 검토해보면, 작가가 견문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과 견문한 사실과 관련된 작가의 심회를 토로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대체로 보아 1)~44)句, 54)~62)句, 81)~102)句는 앞의 경우에 해당하고, 45)~53)句, 63)~80)句, 103)~120)句는 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견문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부분에서 주목되는 것은 작가가 자신의 시야에 포착된 경물과 사실을 가치론적 전제없이 사물 그 자체에 즉하여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물에 대한 사실적 묘사는 조선 후기 기행가사가 지닌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지만, 「탐라별곡」의 경우 객관적 사실 즉, 제주의 역사, 지리적 특성, 백성들이 처한 현실 등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실감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흉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상황을 23)~31)句에 걸쳐 기술하고, 폭풍우로 폐허가 된 농토와 작물을 “兵馬로죽발론닷”, “鐵鞭으로죽쳐논닷”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굴, 祭牛, 宛馬種, 金剛草 등 제주 특산물과 驅點, 山馬點烙, 사슴사냥 등 제주에서만 행해지는 각종 행사에도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주지하듯이 조선전기 士林派 文人들은 문학의 효용을 正心에 두고 그들의 학문이 그러하듯 문학 또한 내면적 자기완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존재의 의를 지닌다는 폐쇄적인 도덕론적 문학관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사림과 문인들이 선택한 소재 또한 그들의 이념을 형상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물이었으며, 소재를 대하는 시각도 소재의 객관적 특성에 대한 탐색보다는 소재를 주관적 관념 표현의 도구로 인식할 뿐 소재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 迂軒이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딪치는 사물 그 자체에 비상한 관심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한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 · 말 · 소 · 닭 · 매 등 인간 주변의 동물, 구름 · 바람 같은 자연현상²⁶⁾, 생활 도구인 풍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물을 대거 작품의 소재로 수용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아침저녁 괴롭게 애쓰며 밭을 오르내리니

朝暮辛勤下上田

한 평생 잠시도 편안치 않네

一生那占片時便

좁은 마굿간에 누워 마른 콩깍지 씹는데

枯箕臥齧無多地

26) 『迂軒集』 坤. 13장 앞 「犬」, 8장 앞~뒤 「牛馬」, 14장 앞 「鷄」, 10장 앞~뒤 「雁」, 10장 「雪」, 12장 앞~뒤 「風」.

게다가 초동들은 채찍 들고 괴롭힌다²⁷⁾

更有樵兒苦舉鞭

「馬牛」라는 제목의 연작시 가운데 소를 소재로 한 위의 시에서, 작가는 일생 노동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초동들에게 매질 당하기까지 하는 소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작품 전체를 일관하는 분위기로 보아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맘흘려 일하면서도 굶주림과 관리의 횡포에 시달리는 당시 피지배층의 고달픈 삶을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의식을 관용적인 詩語를 사용하여 선언적으로 직설하지 않고 소의 생태묘사를 통해 실감나게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을 획득하고 있다.

풍로를 소재로 한 다음 작품 또한 풍로의 구조를 묘사하고 그 현실적 효용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 | |
|----------------------------------|---------|
| 장인들이 힘써 재주를 다투어 | 百工技藝驚爭馳 |
| 만들어낸 기구 모양 교묘하고 기이하네 | 冶器形摸最巧奇 |
| 판자 깔고 화로 두어 구멍과 통하게 하니 | 鋪板置爐通孔穴 |
| 마음대로 바람 일으켜 불꽃을 돋우네 | 鼓風燃火恣施爲 |
| 쇠덩이처럼 단단한 것도 모두 모양을 바꾸니 | 堅如金鐵皆成變 |
| 만들어낸 솜씨는 제각기 모두 적당하네 | 製出陶鎔各適宜 |
| 무릇 백성들이 취하여 이용하니 | 大抵民生資利用 |
| 맨 처음 만드신 이 그 누구인가 ²⁸⁾ | 厥初營造是阿誰 |

위의 시는 작가가 하층민의 노동 현장인 대장간에서 목도한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창작한 작품으로 판단된다. 보다시피 작가는 풍로 그 자체의 구조와 현실적 효용에 관심을 가질 뿐 풍로라는 사물에 어떠한 관념적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물의 객관적 특성과 실용적 가치에 주목한 것이다. 迂軒의 漢詩가 지닌 이러한 표현 및 내용상의 특성을 감안할 때, 「탐라별곡」에 나타난 사물 그 자체에 대한 객관적 묘사 및 사물에 대한 관심은 그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의 소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迂軒이 실학적 인문지리인 『澤里誌』의 序文을 쓰게 된 것도 그의 현실주의적인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탐라별곡」에 투영된 작가의식은 牧民官으로서 작가가 견지하였던 對民意識과 깊은 관련이 있다. 작가의 생애 검토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迂軒은 순천, 운양, 영해 등의 지방관을 역임하면서 민생안정을 위하여 진력하였고 탁월한 치적을 남겼다. 「탐라별곡」의 23)句이하 44)句에 이르기까지 20여句에 걸쳐 흉년과 가혹한 세금 때문에 고통받는 제주도민의 비참한

27) 같은 책. 8장. 뒤.

28) 같은 책. 45장. 앞.

삶을 묘사한 대목 또한 牧民官으로서 迂軒이 지니고 있었던 愛民意識의 소산인 것으로 판단된다.

유학을 이념적 기반으로 한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民生을 염려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관념적, 논리적 차원의 당위이지, 애민의식이 그 진정성에 상응되게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경우는 희귀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탐라별곡」뿐만아니라 迂軒의 시 가운데 사냥꾼, 어부 등 하층민의 삶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관찰하여 묘사한 작품²⁹⁾이나, 다음 작품은 그가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에 대한 애정의 소산에 다름아니다.

| | |
|--|---------|
| 누덕누덕 기운 옷에 안색은 처량하니 | 鵝衣百結色淒涼 |
| 아마도 전생엔 맹광이었으리 | 無乃前身是孟光 |
| 근력이 못견디도록 노동에 시달리니 | 筋力不堪勞走作 |
| 씻기 빗질하기도 바쁜데 얼굴 돌아볼 틈이 없네 | 洗梳何暇理容粧 |
| 새벽 물갈기, 저녁 절구질은 빗갓기 위함이니 | 曉汲昏舂元雇債 |
| 풍년에도 흉년에도 언제나 굶주리네. | 時豐歲歉揔飢腸 |
| 이웃집 음식 찌꺼기 거두어 가는 것은 | 收拾隣家餘瀝去 |
| 텅 빈 상 앞에 모인 애들 불쌍해서라네 ³⁰⁾ . | 爲憐童稚在空床 |

「貧婦」라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위의 시는 가난한 아낙네의 고달픈 일상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포착하여 형상화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頸聯에서 작가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그녀를 지치게 하는 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힘겹게 노동하면서도 그녀는 텅 빈 상 앞에서 먹을 것만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먹일 양식을 구하지 못한다. 당겨 써 버린 빗을 노동으로 갚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일 노동에서달려도 풍년이건 흉년이건 주릴 수밖에 없고, 그녀의 아이들도 남의 집 음식 찌꺼기로 주린 배를 채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가는 부조리한 현실을 관념적 연사를 동원하여 직설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체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구체적 주인공을 등장시켜 그녀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위의 작품이 지닌 이러한 구체성에서 우리는 작가의 애민의식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작가가 기근과 과중한 세금 도적떼의 발로 등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제주도민을 구제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진정성이 담보된 애민의식을 바탕으로 목민관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했기 때문인 것이다.

V. 결론

29) 같은 책. 20장. 앞. 「獵夫」; “山頭伏雉方求哺 臂上馴鷹已放條”, 20장. 뒤. 「漁家」; “戢戢群鱗齊上下 朝朝密網暗鋪張”.

30) 같은 책.

이상에서 필자는 조선후기의 문인 迂軒 鄭彦儒의 生涯와 그의 詩文集인 『迂軒集』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迂軒이 제주목사 재임시 창작한 紀行歌辭 「耽羅別曲」의 내용과 작가의 식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으려한다.

迂軒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서서히 몰락해가던 名門의 후예로 태어나 경세에의 포부를 지니고 과거 준비에 매진하였다. 34세때 과거에 급제한 迂軒은 이후 40여년에 걸쳐 20여년간 환로에 있으면서 주로 牧民官과 言官의 직분을 담당하였다. 牧民官으로서 迂軒은 자기희생적인 애민 의식과 뛰어난 행정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治績을 남겼고, 言論을 담당하고 있을 때는 是非를 분명히 가려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직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일생을 청빈하게 보낸 清白吏였다.

「탐라별곡」이 수록된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필사본 『迂軒集』은 불분권 2冊(乾·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迂軒의 6세손 鄭雨德의 跋文에 의하면 1905년에 편집이 완성된 초고본이다. 「탐라별곡」은 坤의 말미에 合綴別錄 형태로 수록되어 있는데, 기존 2본과 대비한 결과 필사연대, 표기의 정확도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善本인 것으로 판단된다.

「탐라별곡」은 120句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행가사의 전형인 序詞-本詞-結詞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序詞는 제주의 역사, 지리적 환경, 작가가 제주목사로 부임해오는 과정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本詞는 흉년, 가혹한 세금 등으로 인해 굶주리는 제주도민의 참상, 이들에 대한 慰撫, 순력중 실시된 행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結詞는 醉興에 젖어 牧民官으로서의 고뇌를 일시적으로나마 잊는다는 언사로 구성되어 있다.

「탐라별곡」 전편의 내용은 작가의 견문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한 부분과 견문한 사실과 관련된 작가의 심회를 토로한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견문 사실을 기술한 부분에서 주목되는 점은 작가가 견문사실에 대한 객관적 묘사에 치중하고 있으며, 눈앞에 전개되는 사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그의 漢詩가 지닌 특성이기도 한데, 이는 작가의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작품에 구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탐라별곡」에 투영된 핵심적 작가의식은 牧民官으로서의 애민 의식이다. 이점은 하층민의 고달픈 삶을 소재로 한 그의 漢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애민 의식은 논리적 차원의 당위가 아닌 현실적 · 정감적 차원의 진정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상의 논의만으로 「탐라별곡」의 진면목이 온전히 밝혀졌다고 할 수는 없다. 「탐라별곡」의 형식 내지 표현상의 특징 및 비슷한 유형의 작품들과의 대비를 통한 변별적 특성 파악 등은 반드시 해명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尹錫昌. 1982. 「耽羅別曲研究」. 『명지어문학』 12. 명지대학 국어국문학과.

尹致富. 1995. 「耽羅別曲의 구성과 표현」. 『제주교육대학논문집』 제24집. 제주교육대학교.

『譯註 增補耽羅誌』 제주문화원, 2005년 12월

K C I

Abstract

A Study on Tamrabyeolgok by Jeong Eon Yoo

Kim Nam Hyeong(Keimyung University)

This essay is to explore Tamrabyeolgok, a trip lyric and the consciousness of Jeong Eon Yoo (1687~1764), a writ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He was born into a noble family, which was gradually falling in the later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He prepared for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to work for the government. After passing the exam at the age of 34, he served for the government, mainly as a governor and an official in charge of the press for 20 years or so of his 40-year career. As a governor, he made outstanding achievements with his self-sacrificing affection for the people and excellent administrative ability, and being in charge of the press, he distinguished between right and wrong fairly, did not follow his own interests, and dared to speak plainly. He was a man of integrity, who lived a poor but honest life throughout his life. Tamrabyeolgok is contained in Wooheonjip, compiled in manuscripts and kept by Dongsan Library of Keimyung University, which consists of two books of Bulbungwon (Geon and Gon). Compilation of the first manuscript is thought to be complete in 1905, according to the epilogue by his 6th generation grandson Jeong Woo Deok. Tamrabyeolgok appears at the end of Gon in the form of Hapcheolbeolrok and is considered to be relatively good in condition in terms of year of transcription and accuracy of notation, compared to the existing two manuscripts.

Tamrabyeolgok consists of 120 verses and takes the introduction-development-conclusion structure, typical of trip lyrics. In the introduction, he describes the history of Jeju Island, its geographical environment, and the story behind his appointment to the governor of Jeju Island. The development narrates famine, miserable condition of the Jeju people starving due to too much taxes, and occasions held during the Wemoo and Sulreok services for them, while the conclusion talking about how he felt relieved from his agony as the governor for a littl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wine.

The song can be divided into two sections: one describes from an objective angle what the writer saw and heard, and the other tells of the writer's impressions on his experience. It is worth to note that he puts emphasis on objective description in telling

about his experiences, having a deep interest in things which he encountered. This is also a key feature of his poetry and indicates his realistic worldview embodied in his work. The key consciousness of the writer found in Tamrabyeolgok is his affection for the people as the governor. Also found in his poetry about miserable life of people of lower classes, his affection for the people was genuine in the dimension of realistic feelings, different from the necessity in the logical dimension of the gentry in the Chosun dynasty, who adhered to Confucianism.

Key word: Wooheon, Jeong Eon Yoo, Tamrabyeolgok, Realism, affection for the people

